

## ■ 온 정 을 나 누 주 세 요

## 고통도 외로움도, 젓값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남에게 피해주지 않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용태 어르신 마지막 부탁.

73세 용태 어르신은 삶은 어느 한순간도 평탄했던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 배고픔은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과 웃으며 복도를 걸던 기억도 채 가시기 전에, 그는 책 대신 삼과 망치를 쥐어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기에, 배움은 사치였습니다.

목수, 조선소 노동, 허드렛일... 몸이 부서져라 일하며 ‘사는 게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리에서 들려오던 웃음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은 어르신을 어둡고 깊은 심연으로 끌고 갔습니다.

마귀가 보였고, 알 수 없는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내보이나 시도했고, 마지막에는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그날, 실수로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간 것입니다.

그 젓값으로 그는 20년 넘게 교도소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가족도, 친구도, 세상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출소했을 때, 그의 곁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살 집도 없었고, 돈 한 톨도 없었고,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미 기억 저편의 것이었습니다. 결혼은 해본 적도 없었

고, 이제는 홀로 남겨진 삶. 그럼에도 어르신은 오직 한 가지, “다시는 누구에게도 피해주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다시 일어서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고, 차가웠습니다.

20년의 공백은 너무 컸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해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는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그렇게 묵묵히, 고요히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작년, 허리에 불길한 통증이 찾아왔고, 해운대의 한 병원에서 다발골수종 2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기로 진행되어,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에 혼자서는 화장실 가는 일조차 어렵습니다.

더는 일도 할 수 없게 되어, 병원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결국 그는 동행정복자센터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지금은 매달 6번 항암주사를 맞으며

힘겨운 시간을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에서 해운대까지, 지하철로 40분을 오가는 것도 벅합니다. 치료 후 돌아오는 길엔 한 걸음 걷는 것도 힘들어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거나, 택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하지만 매달 반복되는 비급여 병원비와 택시비, 약값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할 영양식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하루 두 끼, 그마저도 한 끼는 라면 한 봉지로 버팁니다. 장애인 콜택시조차 기준에 맞지 않아 탈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는 고통을 견디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으며 “누군가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세상에 폐끼치지 않으려는 용태 어르신.

그의 마지막 삶에, 작게나마 온기를 더해주시길 수 있을까요?

당신의 따뜻한 손길이,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지탱하는 마지막 빛입니다.

## ❤️ 성금 감사합니다

2025년 5월에 게재된 병철씨 사연에 사나눔재단10만원, 공무직노조운영 5만원, 김0선운영 5만원, 김0희운영 3만원, 김0영운영 3만원, 박0영 5만원, 이0옥운영 3만원, 임0철운영 5만원, 채0훈운영 3만원, 이0수운영 10만원, 조0세운영 3만

원, 선우0란운영 10만원, 김0민운영 5만원, 박0희운영 15만원, 정0훈운영 30만원, 김0자운영 2만원, 이0탁운영 30만원, 정0혜운영 1만원, 정0수운영 2만원, 함0운정 2만원, 안0희운영 10만원, 오0수운영 5만원, 김0철운영 3만원, 김0철운영 3만원, 정0범운영 5만원, 임0연운영 10만원, 조0훈운영 25천원, 조0이운영 25천원, 김0영운영 2만원, 운영 1만원 등 총 1,960,000원 기부해주셨습니다.

위 후원금은 병철씨에게 전달하여 병원비 등에 소중히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록도페이 어플 “온정” 앱에서 소액 기부도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세액공제 가능하니 기부금처리를 원하는 운영님은 꼭 연락주세요.  
♥기부금 처리 및 문의 : 남구청 복지정책과(☎607-4864)  
♥후원계좌 안내 : 부산은행 315-01-000297-0(예금주 :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입금자명 뒤에 “온정”을 꼭 붙여주세요!!(예시-홍길동온정)

## 복지시설 소식

감만종합사회복지관은 7월 10일 감만2동, 7월 23일 대연4동, 7월 24일 용당동에서 재활용품 교환 행사 ‘ESG놀이터’를 운영한다. ☎634-3415

남구장애인복지관과 남구장애인협회는 굿피플, 수영로교회 등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626-6990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주민 여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피아노 교실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 2회(월 5만원) 또는 주 1회(월 2만5천원) 중 선택 가능하며, 오후 1시부터 3시 30분 사이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지역 주민 누구나 가능하다. ☎647-3655

문현노인복지관은 6월 10일 문현동네잔치의 일환으로 어르신 100여 명에게 메이크업, 헤어, 네일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늘은 나도 연예인’ 행사를 진행했다. 포토존도 함께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936-9988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은 성인문해교육 ‘용호어학당’에서 한글 비문해 어르신을 위한 자원봉사자(강사)를 모집한다. 매주 금요일 10시~12시, 프로그램실에서 진행된다. ☎628-6737

남구노인복지관은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어르신 정책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구노인복지관과 해운대시니어클럽 관계자, 참여 어르신들이 참석해 사업 운영과 제도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628-1291

## 남구를 밝히는 사랑의 빛

## 더바른이치과,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연동 더바른이치과 이해경 원장은 지난 6월 11일 남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해경 원장은 2011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전달됐다.

## 고향사랑기부제 고액기부자 답례품 재가부

(주)케이시스템(대표 김태환), (주)백경상사(대표 강남규), 석영에스엔티(대표 고강석)는 지난 6월 18일 남구청에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을 다시 기부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기탁된 성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되었으며, 기업 대표들은 받은 감사의 마음을 더 큰 나눔으로 되돌려주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다. 이번 재가부는 고향사랑 실천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16호 고액기부자



(주)남일 최상덕 대표가 남구 고향사랑기부제에 500만 원을 기부해 16번째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기부제의 취지에 공감해 참여했으며, 답례품 150만 원도 취약계층을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고 전했다. 도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구의 기부나 도움을 주는 고마운 분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입니다

안전용품 전문기업인 (주)남일은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 해군훈련대 성품 기탁

해군 제8전투훈련단 부산훈련대(훈련대장 심정환 중령)는 해군창설 80주년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바자회 수익금으로 마련한 라면을 남구에 기탁했다. 이 라면은 참전 유공자들에게 전달됐다. 해군 제8전투훈련단 부산훈련대는 2022년부터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오록도 가족 봉사단 반찬 봉사



오록도 가족봉사단(단장 남미향)은 지난 6월 8일 남구청에 반찬 200인분을 전달했다. 이번 봉사는 도시락 전문업체 푸드박스(대표 조우현)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한부모 가정과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국과 6찬이 준비됐다. 특히 어린 자녀들도 함께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기탁된 도시락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 가구에 전달됐다.

## 문수사 국수 공양 성품 전달식

(주)엘코퍼레이션(대표 조역래)이 6월 18일 용당동 문수사에 111만원 상당의 국수 30박스를 후원했다. 후원품은 문수사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수 무료 공양행사에 제공될 예정이며, 문수사는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책걸상 지원

남구는 지난 6월 9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책걸상 지원 기부식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아동들이 ‘나만의 공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기주도 학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남경스틸, 남구에 600만원 기부



남경스틸(주)(대표 문상혁)은 지난 5월 28일 남구청에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성금 600만 원을 기탁했다. 철강재·해양플랜트 제조업체인 남경스틸은 고향사랑 기부, 나눔리더 가입 등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금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남구 협의체 사업에 지원됐다.

## 어르신 미용봉사 ‘오늘은 나도 연예인’

어르신 미용서비스 행사인 ‘오늘은 나도 연예인’이 지난 10일 문현노인복지관에서 6월 개최됐다. 작년 11월 남구청과 동명대학교 간 체결된 취약계층을 위한 미용서비스 협약에 따라 추진된 이 행사는 남구노인복지관과 남구청 장애인복지관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됐다. 동명대 미래융합대학 뷰티산업학과 재학생 26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헤어, 메이크업, 네일케어 등 맞춤형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남구는 개청 5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 ■ 사진으로 보는 동네 소식



용당동 방위협의회(회장 이현운)는 지난 6월 6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24명을 모시고 ‘호국보훈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감만어린이집(원장 정혜일) ‘지구사랑나눔장터’ 바자회 수익금 50만원을 ‘오록도 5,600원 희망나눔’에 기탁했다.



감만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윤라영)는 지난 19~20일 홀로어르신 행복나눔이 사업 ‘지역의 교백원 go, 따뜻한 그 시절로’ 행사를 실시했다.



우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통장협의회 등 각급 단체 등 35명이 참석해 우암동 편백숲 일원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문현1동 (사)문현1동 장학회(회장 박도상)는 지난 6월 10일 취약계층 고등학생 10명에 50만원씩 총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문현2동 방위협의회(회장 김용희)는 지난 6월 15일 ‘제2회 호국보훈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해 참전유공자에 존경과 감사를 전했다.



문현3동 새마을부녀회(회장 한미숙)는 지난 6월 12일 홀로어르신 등 50여 명에 삼계탕을 대접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문현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임찬호)는 지난 6월 17일 홀로어르신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문4랑 함께하는 짜장데이’를 개최했다.